

40대에도 왕성한 활약을 펼치는 특급 스타들이 있어 KBO리그는 항상 흥미진진하다. 롯데 이대호(왼쪽 사진부터)와 SSG 추신수, 삼성 오승환은 1982년생의 베테랑임에도 인상적인 퍼포먼스로 제 몫을 다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불혹 스포츠 스타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장환수의 수(數)포츠

1982년생 3총사로 본 '황금세대'

프로야구 이대호·추신수·오승환
불혹 나이에 리그 최정상급 기량
톰 브래디, 44세에 슈퍼볼 MVP
테니스 황제 페더러 여전한 활약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민 평균 연령은 43.9세다. 2000년(33.1세)보다 10.8세가 높아졌다. 1970년(23.6세)에 비하면 거의 두 배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국민 건강이 증진된 덕분일까. 스포츠계에도 40대 바람이 분다. 프로야구에선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추신수(SSG 랜더스), 오승환(삼성 라이온즈)의 불혹 삼총사가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운동선수의 마흔 살은 일반인의 환갑 나이. 하지만 이들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스포츠계에는 동기생 스타들이 유난히 몰려있는 황금세대가 있다. 같이 학교를 다녔거나, 대회에 나갔거나,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며 서로 경쟁한 세대다. 야구에선 1958년 개띠가 원조다. 최동원, 김시진, 김용남은 올드팬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국보투수 삼총사. 이만수는 프로 첫 타격 트리플 크라운의 주인공이다. 김성한은 유일하게 프로 홈런왕과 10승 투수를 겸했다. 이들은 1982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우승 주역이다.

다양한 포지션과 물량에선 81학번이 돋보인다. 무엇보다 선동열이 있다. 이순철, 정상흠, 이종두, 박흥식, 박동수, 한영준, 윤덕규, 김용국, 구천서 등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이상군, 이강돈, 강정길은 한 학번 아래지만 동갑내기인 한희민과 함께 1986년 빙그레 이글스 창단 멤버로서 단기간에 팀을 강팀으로 탈바꿈시켰다. 선동열은 고려대 2학년 때인 1982년 세계선수권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이들은 야구가 처음 올림픽 무대에 등장한 1984년 LA 올림픽의 주축이었다.

#야구에선 이후 약 10년 주기로 황금세대가 등장한다. 92학번은 해외 진출의 물꼬를 텄다. 박찬호, 조성민, 임선동의 투수 트로이카는 각각 미국, 일본, 국내에서 맹활약했다. 손경수, 차명주, 손혁, 전병호에 고교 졸업 후 바로 프로에 뛰어든 동기생 정민철, 염종석, 안병원까지 가히 투수왕국이라 할 만하다. 타자로는 박재홍을 필두로 박종호, 송지만, 이영우, 최기문, 김종국, 홍원기 등이 있다. 김종국은 KIA 타이거즈, 홍원기는 키움 히어로즈 감독이다. 이들은 1994년 니카라과 세계선수권대회 준우승 주역이다.

그리고 프로야구 원년둥이들도 있다. 1982년 개띠인 이들은 에드먼턴 키즈로도 불린다. 이대호, 추신수, 김태균 클린업 트리오와 정근우, 이동현, 정상호 등은 고교 3학년 때인 2000년 캐나다 에드먼턴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를 제패하면서 급성장했다. 대표팀은 아니었지만 역대 마무리 투톱인 오승환, 손승락과 김강민, 채태인 등도 동기생이다.

#1982년생 가운데 이대호, 추신수, 오승환과 김강민(SSG)은 아직 현역이다. 이대호는 올해 활약만 놓고 봐도 리그 최정상급이다. 23일 현재 타격 2위(0.369), 안타 2위(58개), 홈런 10위(6개), 출루율 4위(0.409), 장타율 10위(0.510)다. 7관왕 출신인 그가 아닌 다른 선수라면 '몬스터 시즌'이라 할 만하다. 사상 첫 40대 타격왕이면 꿈은 아니다. 그는 시즌 개막 직전 일찌감치 은퇴 선언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도록 주위에서 놔둘지 흥미롭다.

오승환은 11세이브(2승무패)로 이 부문 4위다. 19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선 사상 첫 통산 350세이브를 달성했다. 평균자책점(ERA)은 2.33으로 예전에 비해 높지만, 공의 위력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국내 400세이브와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미국 42+일본 80세이브)에 도전하는데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시간만이 변수일 뿐이다.

#추신수는 드러난 성적만 놓고 보면 의문부호가 붙는다. 지난해 최고령 20홈런-20도루 기록을 세웠지만 올해 타율은 0.224로 떨어지고, 4홈런-4도루로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출루머신'이란 별명답게 출루율 9위(0.401)에 올라있다. 타율이 0.125가 높은 이대호와 출루율에선 0.008밖에 차이가 안 난다. 올해 선두를 질주 중인 SSG은 추신수의 영향 때문인지 상대 투수가 가장 많은 공을 던지게 하는 구단 중 하나가 됐다. 김원형 감독은 올해 추신수를 붙박이 1번 타순에 배치했다. 추신수의 팀 동료 김강민은 풀타임은 아니지만, 타율 0.295에 여전히 최고 수준의 외야수비로 밥값을 해내고 있다.

#프로야구에선 40세 이후에도 1군 경기를 뛴 선수가 25명 남짓 된다. 이 중 이대호, 오승환, 추신수처럼 풀타임 활약을 펼친 선수는 송진우, 최영필, 이승엽밖에 없다. 이승엽은 불혹인 2016년에도 홈런 27개(8위)를 치고, 타점 118개(6위)를 뽑았다. 투수 최고령 기록을 싹쓸이하고 있는 송진우는 선발로서, 최영필은 중간계투로서 제몫을 했다.

국내에선 야구를 제외하면 40대 프로선수가 맹활약한 경우를 찾기는 힘들다. 비교적 선수 생명이 긴 골프에선 최경주가 41세이던 2011년 제5의 메이저대회라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스컵에서 우승한 게 눈길이 간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상금 3268만 달러로 29위에 올라있는 그는 51세이던 지난해에는 시니어 대회인 챔피언스 투어에서 한국인으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봉주는 39세이던 2009년 은퇴 경기인 전국체전 마라톤에서 우승하며 41번째 풀코스 완주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해외에서 40대 선수의 활약은 이제 기사거리도 아니다. 천재 쿼터백 톰 브래디는 44세이던 지난해 만년 하위팀 탬파베이 버커니어스를 미국프로풋볼(NFL) 정상으로 이끌며 통산 5번째 슈퍼볼 MVP에 올랐다. 타이거 우즈 역시 44세이던 2019년 PGA 투어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며 15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수집했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는 41세인 올해 여전히 세계 정상급이다.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역시 41세인 올해 AC 밀란이 이탈리아 세리에A 2021~2022시즌 우승컵을 11년 만에 차지하는 데 주역으로 활약했다.

#황금세대로 다시 돌아가면 농구에는 82학번 스타가 많다. 전창진, 유재학은 현역 사령탑이며 정덕화, 추일승, 한기범, 이상윤 등이 있다. 유재학은 전창진과는 초등학교-중학교 동창, 정덕화와는 대학-실업 동료다. 86학번은 강동희, 유도훈, 강양택, 김광, 임근배 등이 있다. 연세대 트리오인 유도훈, 강양택, 김광은 4학년이던 1989년 전국대회 4관왕을 차지했다. 드라마 '마지막 승부' 세대로 불리는 92학번은 우지원, 전희철, 김병철, 김훈, 석주일, 박준영 등이 오빠부대를 몰고 다녔다.

#골프에선 '세리 키즈'가 유명하다. 1998년 박세리가 US오픈에서 맨발 투혼으로 우승한 것을 보고 자란 이들은 무서운 속도로 한국여자골프의 세계 정복을 이뤄냈다. 1987년생 최나연, 박희영과 1988년생 신지애, 박인비, 김인경, 1989년생 양희영, 1990년생 유소연 등이 있다. 현 세계랭킹 1위 고진영과 전 1위 박성현 등은 신지애가 1년에 10승씩 올리는 것을 보고 꿈을 키운 '지애 키즈'라고 부를 수 있다.

빙속 삼총사 이승훈, 모태범, 이상화는 한국체대 07학번 동기생이다. 이승훈은 4번의 올림픽에서 금 2개, 은 3개, 동메달 1개를 따내 한국선수 최다 메달 타이를 이뤘다. 이상화는 500m 2연패로 금 2개, 은 1개를 획득했고 모태범은 금 1개, 은 1개를 차지했다. 이들 삼총사가 따낸 올림픽 메달은 금 5개, 은 5개, 동 1개에 이른다.

황금세대는 프로화가 정착되면서 사라졌다. 선수들이 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에 뛰어들면서 동기생 개념이 없어진 탓이다. 그러나 이 또한 좋은 일이다. 이제 선수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경쟁한다.



장환수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기자 zangpabo@donga.com

토마스, PGA 챔피언십 7타차 역전 우승

페레이라 18번홀 더블보기로 행운
연장전 잴러토리스 꺾고 통산 15승

선두에 7타 뒤진 공동 7위로 최종라운드를 맞은 저스틴 토마스(미국)는 3타를 줄여 합계 5언더파로 윌 잴러토리스(미국)와 동타를 이룬 채 공동 2위로 먼저 경기를 마쳤다. 순위표 상단에 자리잡고 있던 '루키' 미토 페레이라(칠레)와는 1타 차.

그때 반전이 일어났다. 챔피언조의 페레이라는 마지막 18번(파4) 홀에서 파만 기록해도 우승할 수 있었지만 데뷔 첫 우승에 대한 부담감 탓인지 티샷을 워터 해저드로 보내고 말았다. 결국 더블보기를 적어냈고, 혹시 모를 연장전을 준비하던 토마스는 잴러토리스와의 플레이오프 끝에 정상에 올랐다. 4라운드에서 보여준 집중력에 행운까지 겹친 결과였다.

토마스가 22일(한국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서던힐스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총상금 1500만 달러·191억 원) 4라운드에서 '워너메이커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우승상금 270만 달러(34억3000만 원)를 손에 넣었다.

지난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후 1년 2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하며 투어 통산 15승을 달성했고, 2017년 이 대회 우승 이후 5년 만에 패권을 탈환하며 개인 통산 두 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에 입맞춤했다.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언더파 67타를 친 토마스는 최종합계 5언더파 275타를 기록한 뒤 잴러토리스와 3개 홀 합산 성적으로 승자를 가리는 플레이오프를 펼쳤다.

13번(파5) 홀에서 잴러토리스와 함께 나란히 버디를 잡은 토마스는 17번(파4) 홀에서 세컨샷을 홀컵 10m 지점에 떨군 뒤 버디를 잡아 1타 앞서 갔다. 세 번째 18번(파4) 홀에선 잴러토리스의 12m 버디퍼트가 빗나간 뒤 침착하게 파를 기록하며 연장 3개 홀에서 1타 앞서 최종 우승을 확정했다.



플레이오프 끝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저스틴 토마스가 트로피를 끌어안고 기뻐하고 있다. 털사(미 오클라호마주) | AP뉴시스

PGA 챔피언십에서 마지막 날 7타 차를 뒤집고 역전 우승한 것은 1978년 존 매허피(미국) 이후 무려 44년 만. 메이저대회 전체를 통틀어 놓고 봐도 7타 차 역전 우승은 통산 6번에 불과한 진기록이다.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6번(파3) 홀에선 프로 선수들에게 쉽게 볼 수 없는 '생크 샷(shank shot·공이 골프채의 가장자리에 빗맞는 미스샷)' 실수를 한 뒤 보기를 적어내기도 했다. 토마스는 "최종라운드에서 생크샷을 하고도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상한 날이다. 이런 경험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란다"는 '독특한' 우승 소감을 밝혔다. "페어웨이만 지키면 버디를 잡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참을성 있게 버텼다. 연장전까지 간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데뷔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장식할 뻔했던 신인 페레이라는 '18번 홀 악몽' 탓에 4언더파 276타로 캐머런 영(미국)과 함께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2언더파 8위를 차지했다. 지난주 AT&T 바이런 넬슨에서 한국인 최초로 PGA 투어 2연패에 성공했던 이경훈(31)은 5오버파 공동 41위에 자리했고, 김시우(27)는 9오버파 공동 60위에 머물렀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위믹스 2022 KPGA 프로골프 구단리그

위믹스 구단 랭킹
'제12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종료 기준

순위	구단 명	출전 선수 수	클럽 포인트	포인트 차
1 (-)	CJ	5	6991.57	-
2 (-)	금강주택	6	6656.93	334.64
3 (▲2)	하나금융그룹	3	6524.87	466.70
4 (-)	케이엠제약(주)	4	6233.60	757.97
5 (▼2)	ZIVENT	3	5864.49	1127.08
6 (▲1)	Webcash Group	4	5492.51	1499.06
7 (▲1)	DB손해보험	3	5481.30	1510.27
8 (▲1)	우리금융그룹	1	5347.97	1643.60
9 (▼3)	롯데정신팀	6	5276.80	1714.77
10 (-)	NH농협은행	3	5168.70	1822.87
11 (-)	대보건설	3	4916.31	2075.26
12 (▲1)	㈜우성종합건설	4	4764.09	2227.48
13 (▼1)	SK telecom	1	4696.95	2294.62
14 (-)	WINNERS Volvik	3	4362.54	2629.03
15 (-)	BRIC	2	4304.95	2686.62
16 (-)	HUSEM	2	4030.00	2961.57
17 (▲1)	에드가	4	3105.47	3886.10
18 (▼1)	신한금융그룹	0	3010.00	3981.57
19 (신규)	COWELL	1	2714.00	4277.57

CJ, 포인트 총 1555.81점 추가
위믹스 구단 랭킹 6주 연속 선두

금강주택 2위 수성·하나금융그룹 2계단 올라 3위

CJ가 '위믹스 구단 랭킹' 1위 자리를 지키며 '위믹스 2022 KPGA 프로골프 구단 리그' 선두를 질주했다.

'우리금융 챔피언십' 종료 후 5435.76포인트로 위믹스 구단 랭킹 1위에 올랐던 CJ는 22일 끝난 '제12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에서 1555.81점을 추가해 6991.57포인트로 위믹스 구단 랭킹 1위를 지켰다. CJ는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에 소속 선수 5명이 참가했다. CJ는 구단별 포인트 1000점을 획득한 데 이어 5위 김민규가 375점, 32강에 진출한 이재경이 165.81점, 64강 진출전에서 떨어진 배용준, 정찬민, 최승빈이 각각 5점을 추가해 총 1555.81포인트를 얻었다.

2위는 6656.93포인트의 금강주택으로 지난 대회에 이어 2위 자리를 유지했다. 6명이 출전한 금강주택은 구단별 포인트 1000점에 3위를 기록한 옥태훈이 520점, 32강 진출에 실패한 김영웅이 50.47점, 16강 진출에 실패한 허인회, 김승혁, 최호성이 각각 165.81점, 64강 진출전에서 떨어진 이세진이 5점을 보태 총 6656.93포인트로 1위 CJ를 334.64차로 압박했다.

하나금융그룹이 앞선 대회에 비해 2계단 오른 3위에 랭크됐다. 3명이 출전한 하나금융그룹은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에서 투어 데뷔 13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며 1000점을 획득한 박은신을 필두로 함정우, 한승수가 259포인트를 합작해 총 6524.87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어 케이엠제약과 지벤트가 6233.6포인트와 5864.49포인트로 각각 4위와 5위에 위치했다.

한편 최진호, 데이비드 오를 보유한 코웰(COWELL)이 위믹스 프로골프 구단 리그에 새롭게 합류하며 참여 구단이 총 19개 구단이 됐다. 코웰은 참여 시점 기준 위믹스 구단 랭킹 최하위 구단이 갖고 있는 클럽 포인트의 90%인 구단 포인트 2709점과 64강 진출전에서 떨어진 데이비드 오의 5점을 합산해 총 2714포인트를 얻었다.

위믹스 구단 랭킹은 25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지는 'KB금융 리브챔피언십' 이후 업데이트 된다. 김도헌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